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얼음 깨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한 시간,
함께 질문을 나누며 하나 되어 갑니다.

- 1_ 나에게 가족이란?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말)
- 2_ 나에게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3_ 이번 하반기, 목장 모임에 대한 나의 기대와 다짐은 무엇인가요?

경배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하셨네

소식

1. 수요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장재일 목사(이스라엘밥아카데미)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지리, 역사 연구를 통해 더욱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 1층 리모델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마음 모으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 이용 안내

교회 차량인 마스터버스(15인승, 수동) 차량을 목장/전도회/교회 내 모임을
위해 공유합니다. 차량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교회행사

9월

- 3일 하반기 양육훈련 시작
- 9일 부부세움학교 시작
- 10일 어와나 2학기 개강
- 28-30일 추석 연휴

10월

- 26,28일 성례 교육
- 29-11/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하나복DNA네트워크
김형국 목사
“교회를 꿈꾼다”

선교

[김영진 선교사]

리או스

1. 리오스교회 사역자 신학교육을 위
한 벨엘하우스에서 드러지는 예배
와 교육이 은혜 속에 드러지도록
2. 소와 송아지 나눔을 통한 복음의
통로를 위해
3. 선교지의 우물사역, 병아리 나눔,
비엔티안 기술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4. 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믿
음과 건강을 위해

한문장 큰 울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1927-1956)
에콰도르 와오라니 부족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사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오늘 말씀은 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이 온 이스라엘에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시대적 상황을 먼저 가늠해야 하지요.

1_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통치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3:1)로 시작합니다. 당대의 큰 나라인 애굽이 혼인을 맺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견고해졌음을 의미 하지요. 그러나 이는 다윗 사후 솔로몬이 즉위 첫 시작부터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① 왕의 결혼 = '나라의 신'의 섞임

바로와 딸과의 결혼은 곧 '너의 신이 나의 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통치 중에, 자연스럽게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향후에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의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② 고대의 전쟁 = 신들간의 전쟁

열왕기의 1차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이 와닿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좌절에 내팽개쳐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이미 비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무너지게 하는
오늘 내 삶에 '바로'의 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눔] 하나님에 대한 실망/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어떠했나요?**

2_진짜 엄마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앞에 나온 두 여인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결국 칼을 가져오게 하고, 아기를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주라 합니다. 가짜 엄마는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기꺼이 동의하지만 진짜 엄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사건의 기록 목적은, 누가 친엄마인가를 가려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있지요.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기가 품에 없을 때, 아기를 쪼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두 번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이기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어야만 (포기해야만) 아기가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눔] 나의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의 어려움 / 즐거움 상황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나눔] 요즘 내 마음이 불붙는 공황 /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영역이 있다면 같이 나누어 봅시다.

3_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렘 31: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속에 두 번 마음이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갖고,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어
봅시다. 그 십자가의 공황로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